

목차

머리말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2절. 추진 내용 및 활용

전통문양의 응용연구

1절. 트랜드 예측을 위한 문화적 특성파악

1. 의

2. 식

3. 주

2절. 문양 특성에 따른 응용안

1. 인테리어 : 꽃문, 국화, 불구수식, 도자기, 안경과 안경집

2. 어패럴 :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철릭, 제복, 미인도, 탱화,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박쥐, 고구려벽화, 연꽃(꽃담), 용, 호랑이, 백두산의 우리꽃(산용담, 구름범의귀), 탈, 갓, 영부, 주머니, 족두리, 허리띠, 꽃신, 반지, 귀걸이

3. 패션잡화 : 골무, 건곤감리, 남대문, 첨성대, 지리산, 기러기, 나비, 기러기, 기와, 한글

4. 중국 및 일본 문양의 응용안 : 중국회화, 도자기, 벚꽃과 기모노, 통묘염색

머리말

1절. 연구의 필요성

20세기초 서구의 경제부흥으로 디자인 산업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첨단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세계적 당대의 패션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트렌드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럽의 TEXTILE연구는 오랜 역사성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초 위에서 골동품과 같은 작고 오래된 원단까지 정리, 정돈, 체계화되었기에 단순한 스와치북의 기록물까지 소중한 무형문화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트렌드 자료 및 원단 기록물은 고가의 금액으로 원단 전문업체의 바이어들에게 경쟁적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현대인은 옛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extile Archives와 과학의 정신을 인류문화 및 환경, 제품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렌드 분석은 학문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세계 패션전문인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현재까지는 유럽(프랑스-파리, 이태리-밀라노)과 미국(뉴욕, LA)에서 일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F/W, S/S) 열리는 트렌드 SHOW에서 각기

자국의 세계적 트렌드 책자를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디자이너들도 이전시를 참관하여 트렌드 책자를 구입하여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자에 소개된 Texture, color, pattern이 곧바로 국내의 패션유행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유럽의 트렌드는 서구인들의 문화와 성향에 근거 기초한 칼라와 문양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상당수 있기 마련이다. 21C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90년대 후반에 들어 패션트렌드 흐름은 동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콜렉션에서 용문양을 이용한 의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화려한 자수원단또한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만을 보아도 짐작하고 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인이 적절히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의 트렌드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일본에서 그들의 문양을 책자로 만들어 세계의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한 바이어들이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문화가 동양문화의 전부로 잘못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 하락 가지 야기할 수 있다.

세계는 일일 생활문화권으로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인종간의 문화적 교류는 점차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특정 지역을 일일 이 찾아다니며 체험하고 트렌드로 정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는 물리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통한 보급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한국을 위주로 한 아시아의 트렌드 책자를 통해 일본의 문화가 동양문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동시에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 고부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그 필요성이 있다.

2절. 추진내용 및 활용

본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연구원 이외에 트렌드 책자의 편집을 위해 외부연구위원 2명을 위촉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각연구원들은 자료수집후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되었다.

1단계 : 유럽트렌드의 한국적 트렌드 분석을 위한 자료로의 전환연구

유럽의 트렌드에 적용된 문화 - 한국의 트렌드문화

2단계 : 한국의 문화적 요소 탐방 조사 및 촬영 :충청,경상,전라,제주

3단계 : 아시아지역 트렌드 예측을 위한 탐방조사 및 촬영

일본:동경을 중심으로 박물관 및 민속자료수집

(도쿄국립박물관, 국립민속자료관, 도쿄민가원미술관, 사원과 신사등 탐방 및 자료수집)

4단계 : 한국의 의,식,주를 바탕으로한 한국적 전통문양 수집

5단계 : color, pattern 분석

6단계 : picture 전가 구성(실용화를 위한 방안)

fabric 제작

7단계 : 책자 구성을 위한 초안과정

8단계 : 디자인 발상을 위한 2-D Mapping

이렇게 8단계를 통해 선정되어진 38개의 전통문양은 4개의 제품분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인테리어(침구, 쇼파, 쿠션)

꽃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불구수식, 도자기, 안경과 안경집

◆ 어패럴(자켓, 스커트, 원피스, 티셔츠)

포도넝쿨, 용, 백두산의 우리꽃, 탈, 갓, 영부, 호랑이, 꽃신, 주머니

족두리, 허리띠, 가락지, 귀걸이

◆ 패션잡화(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두건, 타올)

골무, 기러기, 나비, 물고기, 보자기, 지리산

◆ 장신구(귀걸이, 단추, 가방, 신발)

한글, 기와, 매화, 난초

<TREND 분석의 활용분야>

-Apparel / Interior Design

-Industrial Design

-Visual Design

-Ceramic Design

-Glass Design

-Metal Design

-Jewel Design

-Environment Design

현재 동양에서는 일본의 트렌드분석자료 책자를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등의 Niche Market을 겨냥한 책자가 섬유인들 손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패션산업의 불황으로 여러업체가 속속정리되고 불황의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원자재의 확보는 나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렌드 책자를 비롯한 software시장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갈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양이 세계의 디자이너 손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하며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전통문양의 응용연구

1절. 트렌드 예측을 위한 문화적 특성 파악

1. 의

가. 복식의 의미

복식의 풍속은 식생활이나 주생활과 함께 기층문화의 알맹이일 뿐만 아니라 예의와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형상이라 할수있다.복식은 인간의 생활풍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복식의 풍속은 그시대의 법의 구속력이나 제도의 강제성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며 연면히 흘러 이루어진 그시대의 생활양식이다.

나. 복식의 분석의 의의

복식은 형태,색채,문양,소재 등에 나타나는 양식적특성을 통해 착용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나아가 해당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표출하기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표현된다.

각민족은 고유의 민족복을 고유한다.그것은 그 민족이 생존해 온 자연과 사회환경에 순응하며 착용자들의 가치관에 따라 오랜세월이 흐르면서 변천되는 속성을 갖는다.이러한 민족복은 각 민족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민족성만큼이나 여러 모양으로 고유의 양식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기 마련이다.

전통복식미에대한 연구는 과거의 전통복식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통복식미를 현대에 계승하여 보다 참신한 미래 패션문화의 창조에 기여할수있도록 하는데 그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복식미의 깊은 이해를 돋고 나아가 고유한 한국 복식미의 현대화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본다.곧 복식의 아름다움을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차별화될수있는 한국형 디자인 모델을 추구하고있는 디자인계 특히 패션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시각과 지침을 제공해 줄것이다.

다.복식연구의 전개방법

- (1) 복식의 형태,색채,문양등의 조형요소를 중심으로한 미학적 조명과 분석
- (2) 미적특징들을 종합하여 그안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추출
- (3) 미적 가치 형성의 사회적 배경고찰
- (4) 유추된 미적 가치와 미적특징,미적표현의 관계정립을 시도

라.국가별 복식의 특징

한국복식은 아한대성기후로 삼한사온이 계속되는 자연조건과 북방유목민계통의 문화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것이다.속옷부터 겉옷인 포에 이르기까지 몸을싸

는 형식이며 중착의의 구조로 아한대성 기후에 적합한것이다. 또 계절에 따라 의복재료를 달리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중국양식이 많이 도입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중국의 복식제도는 왕실과 귀족층일부에만 국한되었기때문에 외래복식과 고유복식의 이중구조는 계속되어 우리복식의 한특징이 되기도하였다. 일본의 복식은 섬나라라는 지형적특색에 따라 대륙과의 차별화를 보인다. 전통의상인 기모노에서 볼수있듯이 펼친모양의 상의복중심으로 전개됨에 그특성이 있다.

마. 색상전개

인간의 환경은 무수한 색의 집합체로 이루어졌으며 색은 보는사람에게 여러가지 감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색채의 상징성은 인류공통의 보관성도 갖지만 민족의 성정이나 역사적 경험에따라 특수성을 갖는다. 즉 중국명시대 복장의 기조 색인 흑색과 한민족의 백색은 민족적성품과 경사적 배경을 암시하는 중요한 근거가된다.

한국의 경우 고려 부여시대부터 애용되어왔다는 백색은 조선까지 이어져 백의에 내재된강한 지속성으로 원리를 알수있다. 중국의 대표적 색상인 빨강에비해 한국이 선호한 빨강은 명도가 높아 담백한 맛을주고 일본의 전통핵인 남색과 같은 계통인 옥색은 한국의 하늘색과 닮아 한국인들의 자연관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2. 식

가. 식생활사

일류는 고기잡이와 사냥위주의 식생활에서 원시농경생활로 점차바뀌기 시작하면서 식기나 도구의 발전의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곡식을 토기를 이용하여 조리를 해먹으며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었고 장, 젓갈, 김치, 술등 발효식품까지 만들어 발전했으며 점차농경이 발달하여 곡식과 채소, 육류, 유가공품, 간장, 된장, 설탕과 후추등 식품이 다양해지고 모든조리법이 완성되어 나아가게 되었다.

식생활 문화가 발달하면서 조리서가 나오고 그릇과 조리기구와 상은 공예미술품으로 손색이 없을만큼 높은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조선시대 일본과 남방으로부터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같은 새로운 식품이 들어오기도했고 한국음식의 매운맛을 내는데 꼭필요한 고추는 17세기즈음정착되었다.

나. 식문화의 트렌드분석의 의의

- ① 다양한 산물과 재료에서 얻은 motive
- ② 자연의 극치를 나타내는 풍부한 색채감

③ 식기 발달로 인한 디자인 분야의 파생 효과

다. 식문화의 공통점

아시아의 여러나라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의 색상을 견주어보면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할수있다.

- 쌀을 주식으로함
- 밥을 중심으로한 부수적반찬
- 국물이많은 국
- 건더기가 넉넉하고 간이센편인찌개
- 채소, 육류등을 이용한 여러가지찬

라. 식문화의 색상

자연에서 추출되는 다양하고 원색적인 산물의 color variation

3. 주

가. 주생활

한국 고대의 건축문화는 동양건축 문화권안에서 중국계의 영향이 적지않았다. 중국계 건축문화는 주로 한족에 의하여 시작된것으로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남쪽은 인도에까지 이르며 동쪽으로는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는 몽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넓게 전파되어 각기 특성있게 발전하여 왔다.

비바람과 추위, 더위등의 자연환경과 동물들의 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건축은 실용적인 목적 기능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정신적인 기능 때문에 설계, 재료, 장식도 제각기 달라지게 마련이다. 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의 보호, 격리, 분계적 기능 그리고 내구력 및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구조적, 재질적 용의 도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은 그 자체용도를 위한 공간 조성 및 구성, 자연과의 대응, 조화 그리고 궁극적인 심미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미의 표현등 기본조건을 구비해야하는 조형미술이며 그런 점에서 미술활동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어려운 분야라고 말하고 있다.

나. 주거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

- 구성미-한국의 창살무늬는 몬드리안의 회화처럼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면서도 기하학이 갖는 차가움에 끄르지 않고 소박성과 단순성을 묘하게 얻고 있다.
- 회화미-기와의 끝이나 단청에 새겨진 무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양과 재질감에서 드러나는 texture

-색채미-음양오향 사상에 따른 5가지 원색 곤 청,적,황,백,흑의 색채를 주로 사용하되 중간 혼합색을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룸

2절. 문양특성에 따른 응용안

1. 인테리어

꽃문

집의 얼굴이 바로 문이다. 따라서 어느집 어떤집이든지 문을 꾸밉에 누구나 눈을 돌린다. 제집이 바로 제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궐을 비롯하여 벼슬아치집, 절, 향교 나아가 일반집이나 서당, 정자, 들에 이르기까지 집이란집은 모두 문을 꾸며낸다. 제 보금자리의 구실을 넘어서 나타나는 치례인 것이다. 그리고 집의 문에서도 집채, 곤 담(울)이 돌려진 대문안에 들어선집 그자체더구나 몸채(본체)의 문인 '지게'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들 꾸며간다. 나아가 지게에서도 가운데 칸의 지게를 더욱 잘짜고 꾸미게 된다. 바로 꽃문인 '꽃지게'로 만드는 것이다.

지게를 짜는 열개는 문틀, 곤 올거미와 살(문살)로 짜인게 바탕이다. 이를 보통 문짝이라 말하고 있으며 달리 문얼굴, 문부체 또는 문골이라고도 부른다. 살은 세로 살인 날살과 씨살 그리고 빗살로 나누어진다. 소슬무늬살이란세로살인 날살과 씨살 그리고 빗살의 모든문살을 다 넣어 짠복잡화려한 무늬살을 말한다. 곤 소슬 이란 솟은 즉 돌아낸 돌우어낸, 도드라진 의 뜻으로 이무늬살에는 거의가 또 꽃을 새기고 있어 붙여진뜻이 들어있기도하다.

소슬의 짜임새는 모두 다섯가지로 나눠볼수 있는데 먼저 날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진 한벌에 6살이 만나 뻗치는것으로 6모 (거북등)를 이루는 테두리를 만들게된다. 나아가 여기에 꽃무늬가 새겨져 소슬꽃문 즉 소슬꽃지게가 되며 꽃송이가 없는 소슬민꽃무늬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는 날살과 씨살 그리고 빗살모두로 짜여진것으로 한점에서 8살이 만나 뻗어나는 복잡한꼴이된다.

셋째로 날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지되 빗살이 날살 사이의 칸 가운데서 서로 만나는 꾸밈새로 한칸속에서 6모 테두리가 나타나게되는 것이다. 이짜임새는 소슬민꽃무늬로 늘 나타나는게 특징이다.

넷째, 가로살인 씨살과 빗살만으로 이루어진 곤 첫째것을 옆으로 누인꼴이다. 따라서 6모난 테두리의 모가 위쪽에 둘 나타나서 짜여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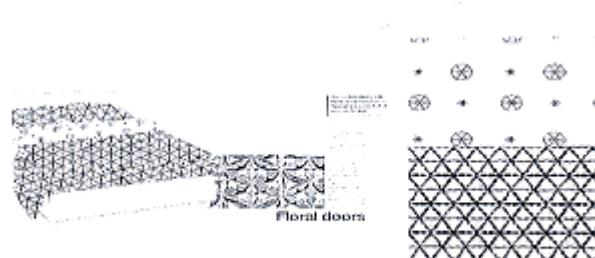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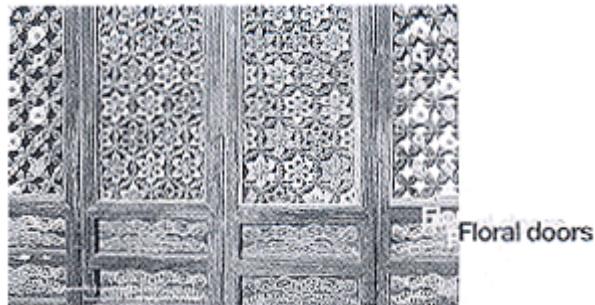
끝으로 다섯째는 날살과 빗살로 꾸며지되 날살을 한줄없애 버렸거나 아니면 한칸을 더넓게 잡은 짜임으로 만들어 날살에서 6살이 모여 뻗쳐가되 테두리는 마름모꼴을 이루는 무늬살이다. 넷째와 더불어 흔치않는 짜임새이며 마찬가지로 꽃송이를 새겨놓은 소슬(모란)꽃문이다.

절문에 나타난 꽃무늬는 먼저 연꽃이다. 그리 정갈하여 꽃가운데 꽂이고 끊임없

이 우리를 깨끗하게 가셔내는 뜻으로 언제나 가까이 한다.
모란은 그탐스런 생김새와 내음의 으뜸으로 나타내어 우리를 저절로 가멸케 만드는것이다.국화는 뜻높은 이(선비,부처)의 오래도록 머뭄(장수)을 뜻하여 ‘국화꽃 묶어 문으로 삼아 ‘그속에 자리하고 있음이다.

.기림사 대적광전 꽃문은 모란소슬꽃무늬로 모란꽃은 6모를 이루는 둘레의 테두리 바깥을 다시 둥글게 하여 갓은 솜씨를 부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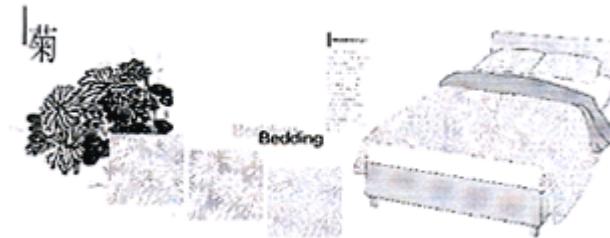
.불갑사 대웅전 꽃문은 6모로 짠 잎사귀 테두리 속에 모란꽃무늬가 있는데 이른바 추상화된 모란꽃 같은 무늬여서 매우 놀라우며 나아가 둘레의 6모 테두리도 이제 잎사귀가 아니라 볍씨(럭비공)꼴로 오려 새겨 둥그스름하며 더욱 공간화 되어있다.



-이러한 모란소슬꽃무늬를 패턴화하고 컬러를 black&white로 단순하고 세련된 느낌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침장패턴으로 재구성하였다.

국화

동양화에 많이 등장하는 국화는 모든잎과 꽃이 진 늦가을에 서리를 무릅쓰고 의연하게 꽂을 피운다. 일명 황국이라하여 노란색꽃을 귀히여기고 흰색, 자주색 등 색깔이 다양하여 들국화, 실국화등 종류가 수십가지에 달한다. 국화는 여름철에 무성한 잎을 키운다음 한줄기에 3-5송이 꽂을 피운다.



은은하면서도 정숙한 여인을 연상시키는 국화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고 깊이있는 멋이 느껴지는 꽃송이를 패턴화하고 색을 은은하며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단순화하며 심플하며 세련된침장패턴으로 전개하였다

불구수식

야외 법회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연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꾸미기 위한 장식솜이다.부녀자들의 노리개와 비슷하며 형태가 다양하다,자수로 만든 몸체만을 이용하여 패턴화 하였다.

-불구수식의 세련된 문양과 화려한 색감을 응용하여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침장패턴으로 제품에 활용하였다.

도자기

조선시대 도자에는 청자,분청자,백자,흑자등 다양한 도자기가 있으며 이러한 조선도자중에서 조선시대 전기간동안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의특색을 가장 잘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청자와 백자이다.

분청자는 15세기 전반에 성립되어 발전을 거듭하다.16세기후 반에 백자화되어 사라지고 백자는 1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16세기 추반에는 분청자를 대신하여 조선도자기의 중심을 이루면서 발전되어간다.조선후기 백자의 특색은 18세기 후반백자의 세계를 꽂피웠으며 19세기 전반에 조선적인 정취어린 세계를 보여주는데 큰공헌을 하였다.이러한 조선도자의 모습은 19세기 후반에 서 20세기초에 걸친 격동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분원의 민영화와 그후원

자이던 조선왕조의 몰락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상품시장화된 일본의 근대자기의 물밀듯한 침투와 양은 그릇등의 유행은 가뜩이나 현상태의 유지에 급급하던 조선백자 제작에 큰충격을 가져와 끝내는 전통의 단절이라는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6세기의 분청자기의 문양을 이용하여 소파, 의자, 쿠션등의 인테리어 패브릭으로 현대적 감각을 살려 데코레이션 하였다. 중간톤 명도의 TONE ON TONE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은은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모던, 현대적인 제품으로 응용하였다.

옛 안경과 안경집

우리나라 안경의 기원은 확실치 않다. 선대가 쓰던 안경은 후대가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안경을 유물로 남기는 일을 방해했고 그나마 남은 안경조차도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하는 문헌과 유물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안경의 기원은 대략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안경이 외부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면 그 경로는 대략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중국을 통해서 전래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일본을 경유하여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안경의 일본 도래설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각안경 테제작에는 암소뿔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갈색 색상이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뿐 하나로 보통 한벌의 안경테를 만들 수 있다.

안경집은 안경을 보호하고 휴대하기 위한 도구로 예로부터 그기능이 중요시되었다. 옛 사람들은 안경작용을 부끄럽게 여겨 허리춤에 매달리기보다 도포자락에 넣어 다녔다. 유물로 전해오는 안경집을 살펴보면 그재질이 다양하다. 처음에는 주로 기능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견고한 나무가 많이 쓰였다.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속을 파낸 다음 다듬어서 옷 칠이나 기름칠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발전한 것이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안경집이다. 이 안경집에는 사군자, 십장생, 화조수복자 등을 화려하게 수놓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에 궁에서는 수놓는 상궁을 두어 안경집을 만들게 했다. 이때 산호 구슬이나 유리 구슬을 실에 꿰어 수놓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가죽보다 종이로 된 안경집이 많다. 아마도 종이로 된 안경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닥나무 한지는 질겨서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종이를 여러 겹 겹쳐 바른 뒤 옷칠을 하거나 종이를 가늘게 잘라 꼬아엮은 것이다. 이것은 질겨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다.

안경테의 재료로 즐겨 사용된 대모는 안경집 소재로도 인기가 높았다. 이 안경집에는 매란국죽 사군자가 양각된 것도 있는데 대모로 된 안경집은 불에 달궈 물렁해지면 쇠로 된 틀에 찍어내어 옆면을 부레풀로 붙여 만들었다.

- 여러 문양의 안경과 안경집 등을 그대로 패턴화 시켜 부드러운 컬러군으로 면트월지나 면자카드에 프린트하였다. 소재를 다양화하여 프린트하면 커튼이나 소파, 쿠션, 침구류 등 다양한 현대적 인테리어용 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어페럴

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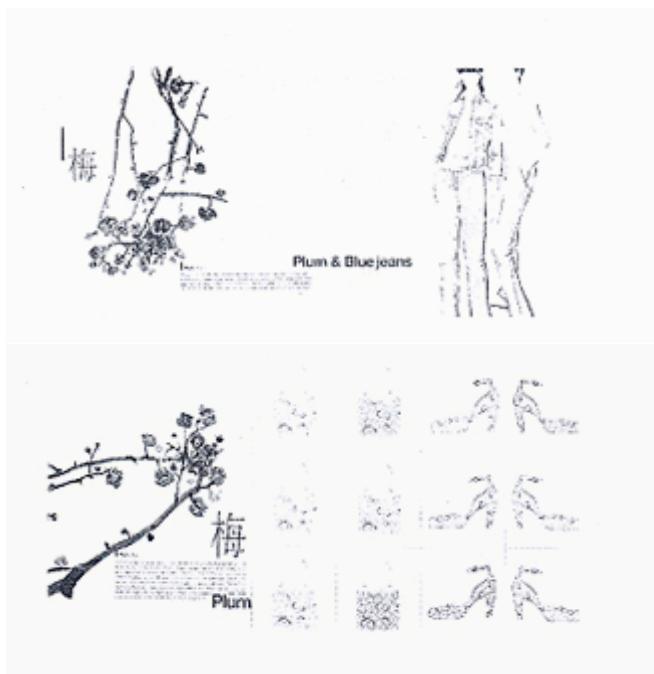
매화는 이른 봄(1~3월)에 추위를 이기고 모든 꽃종에서 가장 일찍 피어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다. 흰 눈이 아직 남아 있는 산골짜기에 피는 매화는 그 모습이 청초하고 순결하여 옛 시인이 노래하며 얼음과 눈에 비유하였다.

매화는 결코 화려하지 않으며 그 모양이 작고 소박하여 동양적이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꽃으로 특히 일본의 국화로서 여러 분야에서 그 문양을 응용하고 있다.

귀여움과 세련된 멋을 함께 갖고 있는 매화꽃의 특성을 짧음의 상징인 진에 접목시켜 보았다. 바랜 듯 밝은 톤의 블루진에 흰색으로 꽃잎을 자수 놓음으로써 한층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매화 꽃잎을 단순하고 밝은 파스텔 컬러로 샤크드 원단에 프린트하여 핸드백과 하이힐(high heeled shoes) 구두 등에 이용하여 세련되고 개성 있는 패션 wear로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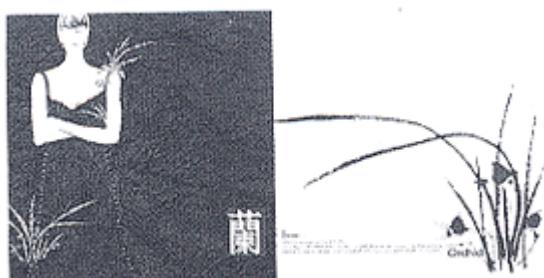
하였다.



난초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며 잎의 고상한 운치와 꽃의 그윽한 향기가 좋아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글과 입에 자주 오르내렸으며 곧게 자라는 모습은 선비정신에 비유되어 왔다.

여백의미로 인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모습을 부분적으로 구김 터치가 가미된 면 또는 노방에 프린트하고 결과 안을 2장의 다른 컬러로 매치하여 은은하고 세련된느낌의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디테일한 부분을 반짝이는 비쥬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동양화적인 난초를 고급 면 주자직에 프린트한 손수건은 세련미가 풍기는 패션소품이다.

대나무

대나무는 곧은 줄기와 사사사철 푸르른 잎을 간직하여 눈, 비, 바람에도 견디어 부러질 망정 굽히지는 않는 꿋꿋한 자조와 절개를 나타낸다. 사군자 그림중에서도 특히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 많은 이유는 대나무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청빈한 선비의 삶과 정신의 일치에서 비롯되었다.

수묵으로 표현한 대나무의 잎사귀를 올오버로 전개하였다. 수직실크에 프린트하므로 써 소재를 고급화 시켰고 모피와 함께 코디하여 세련되고 드레시한 멋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철릭

철릭은 고려시대 원에서 들어왔다. 조선 26년 왕의 곤란으로 속에 입는 받침 옷으로서 명나라에서 받아왔고, 조선 시대 말기까지 문무관의 편복으로 흑색 마포, 백색 모시, 백색 저포, 사, 라, 름, 단이 사용되었다.

펄력은 원래 단령 밑에 입는 받침 옷으로 항상 입도록 하였는데 이는 백관들이 비상시 단령을 벗으면 옷을 갈아입는 번거러움 없이 융복으로 대신하려는 간편함을 따른 것으로 한쪽 혹은 양쪽 소매를 반소매로 만들고 따로 긴소매를 만들어 매듭 단추로 연결한 실용적인 옷이였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왕이하 백관 모두가 철력을 입고 칼을 차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여 공복화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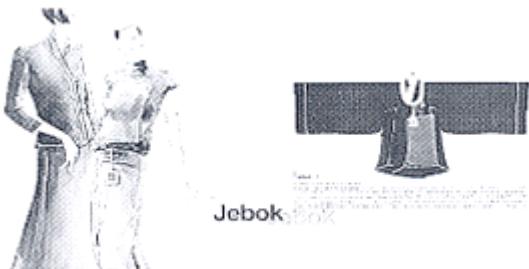
철릭은 의와상을 따로 재단하여 봉제된 옷으로 깃은 곳은 깃이며 시대에 따라 의와 사의 길이와 폭, 주름의 처리 방법, 깃, 소매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철릭의 색은 문헌에서 보면 초기에는 유청색, 흑색, 백색, 감다색 등의 여러 색깔이 사용되었다.

우아하고 세련미가 흐르는 철릭의 깃과 고름은 단순화 하였으며 소매는 실용적으로 슬림화 하여 소매 단을 커프스로 마무리한 개성 있는 가을용 코트로 응용하였다.

제복

제복은 조선 시대 문무백관들이 동지와 설날, 국경일,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종묘사직에 제사지낼 때 입었던 옷이다. 적초의, 청초의, 흑초의 가 있으며 옷의 형태는 같으나 그 색이 틀리다. 그 중 흑초의는 검은색으로 목에 방심곡력을 닮았고 가슴에 폐슬이 달려 있다.

그 소재는 다르나 전체적인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 의상에 접목하였따. black의 올니트와 붉은 삼베 모시처럼 각기 재질감이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가슴의 폐슬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것은 단추를 달아 붙였다 띠었다 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목에 달았던 방심곡령을 허리에 단 것이 포인트이다.



무궁화

한국의 국화로써 꽃색깔은 흰색, 분홍, 빨강, 보라 등 다양하다. 7월부터 10월까지 100

여일간 계속피므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한송이 무궁화를 모노톤의 색상으로 엘레강스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시스루 소재에 프린트 함으로써 그화려함이 두드러진다.

미인도

조선시대 풍속화와 함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미인도’이다 ‘미인도’는 ‘기녀도’에이어 큰관심거리의 하나여서 작자미상의 미인도가 많이 전해져내려오고 있다.

–여성의 body line을 강조한 심플한 실크 드레스에 한국 미인도의 색상과 모습을 그대로 프린트함으로써 독특하고 개성있는 이브닝드레스로 파티복으로도 손색이 없을듯하다.



탱화(수월관음도)

탱화는 거룩하신 부처님을 찬탄하고 경배하기 위해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장엄하게 꾸미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옥에서 천상으로 시공을 넘나드는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담고있는 탱화는 인간이 품고있는 삶에대한 진지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때론 무거운 침묵으로 때론 소리없는 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다.

그중 ‘구월관음도’는 그자비로운 얼굴표정이 특히 아름다우며 신비하면서도 관능적인 느낌마저 전해주고있다.

–자비로우면서 신비스런 수월관음도를 모노톤의 색채로 쉬폰 소재의 얇은 니트조직에 프린트한 셔츠는 패셔너블한 현대의상을 대표한다.

불상(금동미륵반가사유상)

왼쪽 무릎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오른손을 들어 고개 숙인 얼굴의 뺨에 손가락을 대고있는 모습의 상은 일찍이 인도에서 조성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6-7C)와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반가사유상의 형식

이 완성되어 많은 명품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보 78호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으로 불교의 심오한 철리를 사유하며 신비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뛰어나다

-경이롭고 신비한 미소를 간직한 반가사유상의 자태와 청동색감등을 시스루 소재에 프린트하여 세련되고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로 디자인하였다. 반가사유상의 자태를 정면보다 사이드 측면에 위치하여 비쥬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박쥐

박쥐는 일명 선서라고하여 일찍부터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박쥐는 서양에서는 불행의 상징이었으나 동양에서는 행복의 상징으로서 가구의 경첩, 노리개 등 여러분야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궁궐의 벽 부조로 사용되었던 박쥐를 도식화하여 산동실크에 Gold 또는 Silver 색으로 프린트 하여 동양적이며 세련된 현대의상으로 디자인하였다.

누비

은은한 멋과 소박한 매력이 돋보이는 누비는 두장의 형겁이나 피룩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맞붙이는 바느질법을 말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두장의 천사이에 들어있는 공기총은 뛰어난 보온효과를 주고 두장잉 서로 맞닿아 바느질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서로의 공기교환으로 열전달이 빠르고 통기성 또한 뛰어나다.

처음엔 반듯한 직선만 사용했던 누비도 문화가 다양화됨에 따라 마름모, 꽃, 기하학적 모양 등 여러 모양으로 다양화되어 원래 발생동기만 방한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의 미적 심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디테일의 한 종류로 꾸준히 창조 발전되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까지 폭을 넓이기 위해 누빈 모양을 단순화하고 겉감소재와 색감을 다양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넉넉하고 절개없는 스타일에서 스클림, 타이트한 실루엣 라인으로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벽화(각저층 현실 천장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중 각저층의 현실 천장벽화는 화려한 불꽃 문양과 인동당초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문양사이로 삼족오가있는 해와별자리 모양이 보인다.

-당초문과 삼족오등 우리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새로운 레이아웃의 어패럴로 디자인하였다.

연꽃(꽃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집의 벽체나 담장에 여러가지 무늬를 놓아 독특한 치례를 하였다.그렇게 치례한 벽체나 담장을 꽃담이라 한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옛궁궐의 꽃담은 화려하되 야하지 않고 은근한 멋을 풍긴다.두 메산골 토담집주인이 투박한 솜씨로 토담에 꾹꾹박아놓은 기왓조각의 질박한 무늬에 구수한 한국인의 심성이 그대로 배어있어 그윽한 정취를느끼게 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검소한 것을 승상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화려한 꽃담은 저절로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화려한 꽃담대신에 수수하며 은은한 꽃담이 집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임진왜란을 겪은 뒤로는 꽃담의 축조가 현저하게 침체되었는 데 경제 상태가 그만큼 악화 되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천여년의 흐름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지금도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창덕궁 그리고 19세기말에 경영된 덕수궁에서도 의연한 꽃담들을 볼수있다.현대인들은 꽃담을 건축도자의 한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환경도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환경도예란말은 서구에서 시작했으므로 환경도예자제가 그쪽에서 비롯된것처럼 여기기 쉬우나 환경도예의 근간이 꽃담이나 도조라고 볼때 환경도예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다하겠다.

꽃담의 무늬 표현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있다.하나는 반복되는 직선과 곡선 그리고 점선과 면으로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체를 평면적으로 묘사해 내는 형상 무늬 기법 ,셋째는 부조나 투조의 입체적인 기법이다.

-경복궁 자경전 뒤뜰의 샷담에 이어져 있는 굴뚝에 새겨진 십장생 무늬중 연꽃모양을 응용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여성스럽게 패턴화하고 중간톤의 색감으로 시스루 원단에 접목시켜 재질감을 살렸다.



용

용은 민속을 통새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흥수와 가뭄을 주제하는 수신, 바다와 항해의 조업을 주제하는 해신, 왕권과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신으로 서의 용이 있다. 사람들은 용의 다양한 성질과 신비한 능력에 의탁하여 그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 되기를 빌었다. 무속에서는 용을 수신으로 섬기면서 풍요와 안전을 빌었고 궁중에서는 용을 임금의 권위에 비유하여 여러 장식문양으로 활용하였으며 민가에서는 용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놓고 용의 능력을 빌려 잡귀신을 물리치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용품, 문방구 등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활용되어 있다.

–화려하고 신비한 용을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번아웃 효과와 색감을 DarkTorn으로 현대적이고 심플한 느낌을 주어 세련되게 재구성하였다.

호랑이

호랑이는 한국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로서 힘과 공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해학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까치와 함께 짹을 이룬 호랑이는 땅을 까치는 하늘을 각기 상징하여 우주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우주관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의미를 지닌 한국민화의 호랑이를 소재로 하여 개성있게 디자인하였다.

백두산의 우리 꽃

.산용담

산룡담, 고산룡담이라고 부르는 용담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거리나라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높은산 위쪽에 자라는 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부 지방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평안북도 낭림산맥의 노봉, 함경남도 부전고원, 함경북도의 백두산 관모봉등 해발 2.000미터 이상의 높은 산 암석지와 백두산백운봉 해발 2.200미터-2.600미터사이

의 높은 지대에서 많이 자란다.

뿌리줄기는 짧으며 마디와 마디사이가 짧고 털은 없으며 능성이 있다.

밑부분에서 새순이 나와 뿌리에서 나는 잎이 몇 개 달린다. 7-8월에 꽂이피는데 연 노랑색 바탕에 푸른 자주색 점이 있으며 작은 꽃자루의 길이는 2cm쯤된다. 용담류의 꽂은 대개 8-10월 말까지 피며 가을산에서 맨마지막으로 피는 꽃이라 할수 있다. 늦게 피는 것은 10월 하순 찬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될 때까지도 핀다. 관상용, 약용으로 쓰며 화단에 관상초로 심기도 한다

-꽃과 잎을 은은한 2tone컬러를 사용하여 봇터치가 가미된 회화적 느낌으로 패턴화하였다.

구름범의귀

호이초, 등이초, 석하엽, 금사하엽이라고도 부르는 범의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범의귀는 우리나라 각지방은 물론이고 일본과 만주 지방까지 분포하여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다. 산 계곡의 음습한 곳에 많이 자라며 발을 만들어 돌사이등에서 재배하기도 했다.

구름범의귀는 우리나라 북부지방 높은 산지에 자라는데 대개는 평안남도 낭림산, 평안북도, 함경남도 포태산, 부전고원, 함경북도 백두산 관모봉 등지의 산중간 이상의 높은 지대에서 흔히 자란다.

꽃은 연약하고 별로 보잘 것 없지만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서 구름범의귀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원의 돌사이나 화분에 심으며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한방, 민간에서는 호이초라고 하여 뿌리를 보약등의 약재로 쓴다.

-모노톤의 은은한 컬러에 붉은색과 은색의 점으로 꽃을 표현하여 발포 프린트로 패턴화하였다. 발포 프린트는 고무낙인과 같은 재질감을 주어 거칠면서도 섬세한 효과를 나타낸다

탈

탈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려고 종이, 나무, 흙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이나 가면 또는 속과는 관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모습을 의미한다. 국내외의 적절한 요약으로는 가면은 얼굴을 가려 변장이나 방호, 호신대, 등의 특정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며 또한 동물, 초자연적인 존재신을 표현한느 가장성을 갖는다. 넓은 의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한, 방독, 방호적인 측면까지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토속적, 연극적 가면을 뜻하며 상징과 표정, 두가지요소로 환원되는 조형예술이다.

탈이란 아득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산, 신앙성을 띠면서 벽사, 의술, 영혼, 추억, 토템,

기우, 수렵, 전쟁, 입사, 연희 등에 쓰여지기 위해 창출된 역사적 조형물로서 풍토, 역사, 생활양식에 따라 독창적인 '탈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이니 그분류, 분포 심지어 '마을의 역사' 단위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에 지난 시대의 형태는 반복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발전과 함께 가변하면서 부단히 재창출 되는 것이다. 가면의 효시는 중국의 경우에는 나례에 쓰인 방상씨 가면이며 그의 가무에 쓰인 외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무악면, 백제의 기악면, 신라의 월전, 속독, 산예면 등도 서역의 영향을 받은 가면들로 중국의 방상씨면과 서역계의 외래면도 함께 전해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탈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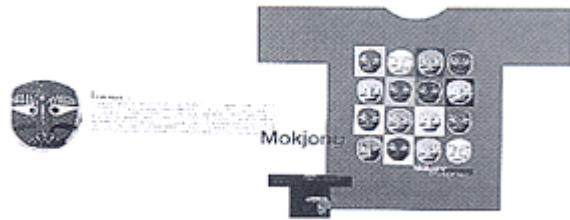
흔히 탈을 분류하는데 크게 '신양탈'과 '예능탈'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양탈이란 그 탈에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소망을 기원하기도 하고 지킹이로써 밭들기도 한느 것인데 대개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다

같은 '신양탈'이라도 이와는 달리 얼굴에 쓰거나 양손으로 드는 등(처용탈, 범탈의 경우) 움직이면서 귀신을 쫓는 의식에서 쓰는 구나면이 있다.

예능탈은 주로 춤추고 굿(연극이라는 뜻)하고 놀이할 때 얼굴에 쓰는 것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놀이탈은 '양반광대놀이', '비비새놀이', '소굿놀이', '거북놀이' 등에 서 보이듯이 다분히 즉 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산대놀이 가운데 하나인 양주별산대놀이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전승되고 있으며 모양새나 빛깔이 곱고 화려하며 현대적이다. 모두 22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붉은색 바탕에 눈은 아래로 처지고 입도 크게 아래로 찢어져 이마, 양복, 턱에 주름살이 있고 눈썹과 수염은 노랑과 검정으로 반점을 찍었다.





–해학적이고 강렬한 색상의 탈(목종)을 그래픽 이미지로써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의 티셔츠에 프린트하였다. 탈은 그강한 캐릭터성으로 기념품 티셔츠에 적합한 문양이며 실제로 연령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외 여러제품에 응용되고 있기도하다.

갓

입은 원래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으나 재료, 형태, 제작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성을 가지는 관모로 되었다. 형태상으로 볼 때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어려운 방갓형과 그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의 두 계열이 있다. 방갓형의 갓으로는 방갓, 삿갓 등이 있고 패랭이형으로는 패랭이, 초립, 흑립, 백립, 주립, 옥로립, 전립 등이 있다. 넓은 의미의 갓이라고 하면 방갓형과 패랭이형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것을 말하나 일밝거으로는 좁은 의미의 갓, 즉 흑립을 말한다. 흑립은 패랭이에서 초립의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조선조 오백년의 대표적인 입제로 정착된 것으로 사대부나 서민 모두에게 사용되었으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의 고유한 멋을 나타내는 의관이 되었다.

갓은 흑칠이 본색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붉은 옻칠을 한 주립은 무관 당상관이 용복을 입을 때 착용하였고 밭길은 상복에 팍용하였다.

–어른어른 얼비치는 투명한 멋을 지닌 갓은 단순히 Black 컬러이지만 그 자체로 동양적인 신의 아름다움과 개성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기에 충분하다. 정적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내포하면서 선비의 인격과 정신이 살아있는 갓을 모티브로 티셔츠에 프린트 하여 새로운 개성을 창출하였다.

영부

주술적이며 신앙적인 측면에서 부적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그 모양이 특이하고 하나의 문양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동학 농민 전쟁 중에 영부는 궁궁이요 태극이요 곧 마음심자의 표현으로 마음은 마음이 되 탁한 세속적 마음이 아닌 만유생명의 근원인 우주본성의 마음으로 “영부를 붙이면 풍으로 쏘아도 맞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라는 주술적 의미로 많이 활용되었다.

-주술적 의미를 지니면서 그모양이 특이한 영부를 티셔츠 프린트에 응용하였다. 직접 티셔츠에 프린트 하지않고 다양한 소재(면,마,울,실크등)에 프린트하여 단춧구멍으로 내고 붙였다 띠었다 할수있도록 디자인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주머니

주머니는 신분의 고하,남녀의 성별에 따라 그 꾸밈새가 달랐다. 예를 들면 주머니의 입이 아홉번 접힌 것은 궁중용이고 세번 접힌 것은 일반 서민용이다. 궁중에서는 위로 임금에서 아래로 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머니를 지녔다. 우리나라 옛주머니의 기본형태는 두루주머니와 귀주머니로 나뉜다. 두루주머니는 말이 둉글고 주머니 입에 잔주름을 잡아 입 양쪽으로 끈을 끼어 졸라매면 입이 오므라져 그생김새가 두루 게 즉 둉글게 된다. 이에비해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꾸며서 입쪽 위 절반을 두번 접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만든것이다. 귀주머니는 주로 남자가 사용했고 두루 주머니는 여자가 애용했다.

주머니의 색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가장많고 옥색과 청색도 더라있다. 이처럼 청홍 두색을 사용한 것은 색상으로 나쁜일을 몰아내고 좋은일을 바라는 색채 상징에서 비롯된것이다. 옛주머니는 거의 다 수를 놓아 장식했다. 수주머니를 일러 꽃주머니 또는 복주머니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있다. 주머니에 수놓인 무늬는 모란, 국화, 매화, 석류, 연꽃 등 꽃무늬가 가장많고 십장생을 비롯하여 길상의 동식물, 수복, 쌍화자, 다남자, 백년동심 효제충신의 성어가 대부분이다

족두리

조선시대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사용하던 관모의 일종으로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 그형태는 아래는 둉글고 위는 여섯모로 되었으며 속에는 솜이들어있고 가운데는 비어있다. 장식이 없는 것은 민족두리, 패물로 장식을 하면 꾸민족두리라고 한다. 주로 예복인 원삼, 활옷, 당의와 함께 사용하나 치마저고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허리띠

실을 엮어 끈을 짠것으로 얇고 좁으므로 세조대라고한다. 끝에 땅기술이나 봉술을 매달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주로 도포, 전복등에 띠었다. 품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당상관은 흥색 또는 자색을 당하관은 청색 또는 녹색을 서민은 흑색을 상제는 백색을 띠었다.

꽃신

꽃신은 짧은 부녀자가 주로 신었던것으로 흔히 당혜나 문혜와 모양이 같다. 배를 여려겹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있는 비단을 두르고 다시 바탕색과 반대되는 색실로

매화, 대나무, 나비, 꽃등을 수놓아 아름답게 꾸몄다. 개화기 이후에 일반 부녀자들도 꽃신은 혼인할 때 시댁에서 반드시 장만해 주었다고 한다. 꽃신은 신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잠깐씩 신는 신발로 아껴 두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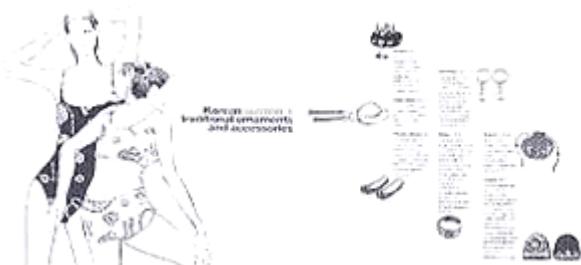
반지

반지과 가락지는 노리개와 더불어 조선시대 때 가장 일반적인 장신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은 매우 단순했다. 가락지는 2개를 쌍으로 하여 금. 은. 비취 등으로 만들어 기혼부인이 사용했다. 반지는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일반 여인들 간에 사용되었다. 남아 있는 유물로 써는 칠보, 옥, 마노, 호박, 비취, 동등이 있으며 계절에 맞춰 끼는 멋이 있었다.

귀걸이

귀고리는 컷볼을 뚫어 작은 고리로 끼던 것으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많이 유행하였다. 그 후 풍속이 오랑캐 풍습이라는 이유로 선조 때 고치게 하여 남자의 귀고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여자는 컷바퀴에 거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 귀걸이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특히 삼국시대 때 남녀의 구별 없이 널리 쓰이고 애용되었다. 형태는 3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난— 고리 1개로 만든 소환식이고 다음은 금제 세환에 작은 고리 1개를 연결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환에 중간식이 연결되고 중간식에 다시 수하식이 이어진 것이다.

—여성 소품이나 장신구를 모티브로 하여 문양을 단순화 시키고 전통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정리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였다. 신축성이 있는 스판이나 라이크라 소재에 프린트하여 비치웨어 혹은 언더웨어 등에 응용할 수 있다.



3. 패션잡화

골무

바느질 도구 중에서 바늘, 실, 자, 골무, 가위, 인두, 다리미를 '규종필우'라하여 예로부터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이 외에 밀대, 바늘집, 바늘쌈, 바늘꽃이, 실침, 실패, 반

진고리등 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서민은 이와 같은 도구를 다갖추기는 어려웠다. 바느질할때 손가락끝이 바늘에 찔릴 수도록 하며 두꺼운천에 바느질을 할때 바늘을 밀어 넣는 용구로 타원형이며 오른손검지끝에 끼어 사용하였다. 재료는 형겁이나 가죽이었으며 후에는 백통이나 은, 금속류도 있다. 천으로 만든 것은 수를 놓은 것이 많다.

-가죽이나 형겁에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문양으로 수놓은 색색의 골무를 남성액서사리의 대표인 넥타이에 접목시켰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의 칼라 군으로 정리한 골무는 카키색의 셔츠와 조화되어 세련된 남성미를 풍긴다.



건, 곤, 감, 리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사파로써 태극은 우주만상의 근원이며 건은 정의, 곤은 풍요, 감은 지혜,라는 광명을 뜻한다.

-태극기의 태극문양을 제외한 사파(건, 곤, 감, 리)를 기하학적으로 패턴화시켜 넥타이로 응용하였다. 일반프린트가 아닌 선명자카드로 재직된 넥타이는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되었다.

남대문/첨성대

남대문

한양도성의 정문으로 태조5년(1396)에 창건되고 그후 세종30년(1448)에 개건한 모습이 오

늘에 전하고 있다. 국보 1호로 현존 성문건축중 최대의 건물이며 우리나라 건축사상 가장 중요한 건물의 하나라고 하겠다.

첨성대

국보 제31호. 신라 선덕여왕때 세운 천문대로 우리 조상들의 기상과 농경을 중시했던 점을 알수있다.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화강석으로 둥글게 쌓아올려 그건축미가 두드러진다.

-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남대문과 첨성대를 응용하여 클래식한 넥타이 디자인을 하였다. 이러한 제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손쉽게 선물할수 있는 제품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다다간다.

지리산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디자인의 훌륭한 소재가 된다. 해가뜨는 새벽녘 노을지는 황혼, 사시사철 색을 달리하는 지리산의 풍경은 그자체로 한폭의 수채화 이면서 디자인으로 도 손색이 없다.

- 어스름하게 동이 터오는 지리산의 푸르른색감을 그대로 사용하여 쉬폰 실크 또는 새튼 실크에 프린트하여 스카프, 쇼울등 패션 액세사리로 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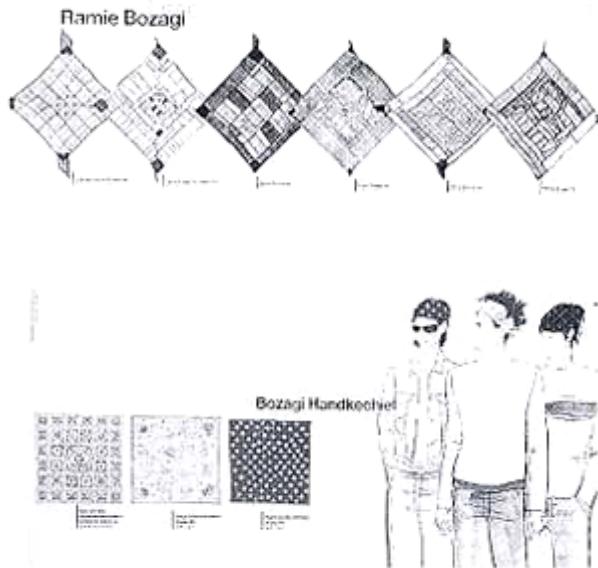
기러기

기러기는 철새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안서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도 알려져 있다. 기러기는 반려와 음양지의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날아 오르는 기러기들을 묘사한 문양은 최상의 상서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나비

만물이 희생하는 날 봄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짹을 찾아 생을 구가하는 나비는 자유연애와 미호,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예로부터 병풍, 부채, 문갑의 장식, 자물쇠등으로 만들어졌다.

- 극히 동양적 사상의 의미가 내포된 모티브들은 패션의 좋은 소재가 될수있다. 하나하나의 모티브를 섬세하게 표현하여 파스텔톤으로 디자인한 스카프들은 세계의 유명 브랜드에서도 즐겨 응용하는 패션 소품이다.



보자기

순수 미술의 경지에 이른 보자기는 우리생활주변에 있다. 같은 보자기이면서 더욱 예쁘고 튼튼하며 잘생기기를 바라는 여인의 마음이 담긴 보자기는 견실하면서 대담하고 화사하면서 질서정연한 그림과도 같다.

보자기의 명칭은 표준말인 보자기 외에 복, 보, 보자, 복등으로 불이어왔고 각 지방의 방언 명칭까지 더하면 매우 다양하다.

전통보자기는 사용계층, 구조, 문양의 유무, 용도, 색상, 문양종류, 재료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계층에 따라 궁중에서 사용된 궁보와 민간에서 사용된 민보로 크게 나눈다. 구조적 특징에서 보면 안감을 대지 않은 훌보, 안감과 겉감두겹으로 된 겹고, 깨지거나 흠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솜을 두고 안감을 덧댄 솜보, 직선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hsnqu서 만든 누비보, 천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식지(기름종이)를 대거나 실지만으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나뉜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상용보, 혼례용보, 종교 의식용보 및 기타 특수 용보로 나뉘며 색상별로는 청홍보, 소색보, 황색보 등이 있고 천의 문양종류에 따라 용문보, 화목문보, 문자문보 등으로 나 눈고 재료별로는 맹주보, 비단보, 면직보, 모시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은한 중간색을 바탕으로 빨강이나 검정 같은 강한 원색을 배치하여 강한 긴장감을 준 보자기가 신세대 패션소품인 두건으로 응용되었다.

두건은 Tone on Tone의 색상을 매치하여 강한 긴장감보다는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표현하였다.

기와

기와는 크게 평기와 막새기와 망새기와로 나누며 평가와에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있고 막새기와에는 수막새와 암막새, 초가리기와가 있다. 또한 망새기와에는 용마루용이나 내림마루용 장식기와가 있다.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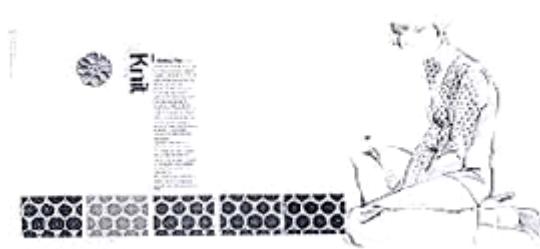
이기와는 암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암기와는 평평하고 넓적해서 지붕의 바닥을 덮는 역할을 하고 수기와는 둥글고 길쭉해서 암기와의 암기와가 만나는 세로줄을 덮음으로써 완벽한 지붕이 되도록 한다.

막새기와

막새는 끝을 막아 준다는 뜻으로 무늬판이 암기와의 끝에 달리면 암막새, 수기와의 끝에 달리면 수막새가 된다. 암막새나 수막새는 대부분 처마끝에 설치하여서 지붕의 끝을 깨긋하게 마감하여 줄뿐만 아니라 서까래나 부연끝을 감싸줌으로써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망새기와

이것은 대부분 지붕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것으로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기와를 굽듯이 헹을 빚어서 만들어내고 있다. 취두는 독수리의 머리모습을, 용두는 용머리를 형상화 한 것인데 지붕의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주요한 것이다.



-기와의 다양한 모습을 도식화한 무늬는 단추무늬나 니트의 조직문양으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멋을 느낄 수 있으며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나 새로운 원단조직 등 그 개발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한글

한글은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우리의 글자이며 동아시아,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없는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과학적인 글자이다.

‘ㄱ, ㅈ,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이들 자음하나하나역할과 특성이 다르다. 특히 한글의 ‘ㄹ’은 한글이 지닌 글자의 특성과 그 미학을 가장 잘나타내는 황금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다.

-한글의 ‘ㄹ’과 ‘ㅎ’을 그대로 살려 귀걸이와 브로치로 활용하였다. 소재는 큐빅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변형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인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4. 중국 및 일본 문양의 응용안

중국회화

한.당 시대는 중국 회화사에 있어서 고대에 속하는 시대며 청동기와 도기에 그린 도인화시대, 주로 무덤의 벽에 그린 인물화시대, 비단에 그린 초상화시대, 동굴과 절의 벽에 그린 불화시대, 산수화와 화조화시대의 여명기에 해당하는 시대이다.

낡은 사회질서의 붕괴와 북쪽과 서쪽의 기마 유목민족으로부터 받아들인 외래문화는 전통적인 농경민족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즉 말타고, 활쏘는 습관, 생활 도구의 개선, 청동기의 용접기술, 화려한 금속장식, 유리제품의 발전, 호풍의 유행, 벽화 기법 등 화법의 유입 등은 전통적인 중국문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한시대(B.C.206~A.D.220)에는 궁정안에 화실을 설치하고 화공을 양성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즉 이때부터 궁정작화 기관이 설치된셈이다. 그림의 내용은 전쟁, 통치, 교육, 농사, 방직 양잠, 제염, 수렵, 어업, 연회, 운동, 요리, 가무, 오락, 효행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이 망한 후 360여 년간 계속된 위진남북조 시대는 분열된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운 시대인데 유교질서의 붕괴 때문에 도교와 불교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선그림과 부처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크고 화려한 도관과 사찰의 벽에는 벽화가 그려졌으며 절벽을 뚫고 만든 굴사에도 화려한 벽화가 장식되었고 불상도 조상되었다. 돈황의 막고굴과 벽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후한시대 산동성 가상현 무량사 화상석의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조각을 패턴화 하여 모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생활자기인 머그컵과 접시에 접목시켰다.

중국의 도자기

도자기는 중국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일찍이 상(상)나라, 주(주)나라, 시대에 원시적인 형태의 자기가 나타나서 동한(동한) 말년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자기로 발전되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자 청자를 굽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청자로 만든 그릇에 누각, 새, 짐승, 개, 물고기,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이나 파수병들을 만들어 붙이는 경행이 유행하였다.

당나라 시대의 자기는 남방에는 청자, 북방에는 백자라 일컬기도 한다. 이때에도 여전히 청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는 고대 도자기 예술이 고도로 발달한 전성기였다. 도자기 생산은 전국 각지로 두루 퍼져나갔으며 각지에 모두 유명한 요가 있었다. 이 시기는 여전히 청자, 백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채외자도 발달하였다.

송나라 때에 이르러 도자기는 예술 면에서나 기교 면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송나라 고예미술 품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가 되었다. 원나라 때에도 송나라 자기 예술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경덕진에서는 청화자기와 유리홍자기를 생산하여 채색자기 생산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어내었다.

명, 청 시대에는 다채로운 도자기가 생산되던 시기였다. 단색 자기에도 수많은 새로운 빛깔이 등장하고 채색자기는 청화, 유리홍 이외에도 두채, 오채, 분채, 법랑채 등이 있었다. 민간 도자기 청화자기는 빛깔이 침착하고 소박하고 멋스러운 품격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 성화 시기에 성숙한 두채와 선덕 시기에 등장해 가정, 만력 사기에 유행한 오채는 모두 청화자기에 속하는데 청화유하채와 청화유상채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청나라 때는 분채와 법랑채가 발달하였다. 분채는 연가루가 함유된 유리백에 색을 낼 수 있는 금속을 섞어 바탕에 그림을 그리고 구워서 만든 것이다. 분채는 색깔이 맑고 명쾌하며 부드럽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그 문양은 입체감을 띤다.

법랑채는 자태화 법랑이라고도 하며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든 공예 품으로서 섬세하고 눈처럼 하얀 자기에 풍부한 색깔을 가진 법랑으로 여러 가지 도안을 그려 넣는 것이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입체감이 풍부하다. 법랑채 자기는 궁정용 자기여서 생산량이 매우 적어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

건륭이후 중국의 도자기 예술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다가 1949년 이후에야 점차 다시 회복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 피구 화병에 그려진 여러 가지 도안과 풍부하며 화려한 색상을 응용하여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어울리는 식탁용 매트로 디자인하였다

벗꽃과 기모노

일본의 국화인 벗꽃은 봄에 분홍빛이나 흰빛으로 피는 꽃으로 가장 일본적인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다.

- 단아한 모양의 화려하고 풍성한 벗꽃을 패턴화하고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응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통묘염색법-INDIGO DYEING

통묘는 에도시대(강호시대)중순경부터 일본 각지에서 시작된 염색으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 학, 거북이 등 길상문양이 많이 쓰였다.

◎기법

1. 원단 위에 풀(PASTE)로 밑그림을 그린다.
2. 풀이 완전히 마른뒤 붓에 물을 적셔 원단위에 바른다.
3. 발표법 또는 환원법으로 마련한 인디고(INDIGO)염료에 담근다.
4.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흐르는 물에서 씻어내면 풀이 떨어져 나간다.

◎문양의 종류

통묘에 보여지는 문양의 표현은 사실적이며 유머러스한 것이 많다. 일본 서민의 감각을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것으로 일본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길상문양이 많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봉황, 사자, 노지(정사각형의 색종이를 기다란 육각형으로 접어서 선물에 덧붙이는 것), 송, 죽, 매, 학과거북, 부채, 갖은보물, 차도구, 기하학문양, 가문(그집을 상징하는 문양), 새와짐승, 전설과 설화

◎용도

이불, 방석, 유단(기름에 절은 종이나 천), 보자기

목단꽃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패턴을 침구디자인에 접목시켜 일본의 인디고 블루와 현대의 청원단(Blue jean)의 조화로 침구(bedding)의 새로운 재질변화를 시도하였다.

맺음말

1절. 연구와의 및 활용방안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는 산업화되어 정신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시여기는 물질만능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로 인해 날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는 첨단 기능중심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나라의 문화는 그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래의 주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그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표인 것이다.

한국을 위시한 중국과 일본등 동북아시아는 유구한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각기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이미 중국 및 일본과는 과거 잣은 왕래로 많은 문화적 교류가 있어왔던터라 공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기본으로 하여 연히자료를 수집하여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서양의 많은 패션인들은 동양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콜렉션에 동양적인 것을 매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패션쇼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이제 세계의 패션의 흐름은 이미 동양으로 중심을 잡았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있음을 느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처럼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 자료를 열람하듯 조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바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옛 문헌 속에서 잠자고 있던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상품화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때 이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미흡하지만 아시아권 트렌드북으로 편집된 이 연구서는 좁게는 이제 패션을 공부하고 자하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들 및 넓게는 외국 디자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가치가 있으며 CD ROM 제작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보다 많은 세계인이 이 연구서를 접할 때 자연적으로 동양문화의 우수성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